

생물권보전지역과 기후변화에 대한 드레스덴 선언

2011. 6. 28.

2011년 6월 27-28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생명과 미래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과 기후변화' 국제회의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은 오늘날 환경 분야의 핵심 과제이다. 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발전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비롯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는 1971년 처음 소집되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지역을 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MAB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핵심 목표로 천명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승인 받고 있으며 지난 40년 간 큰 성공을 거두어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생태·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형태의 이용과 대안을 시험해볼 수 있는 모범지역의 세계네트워크이다.

유네스코 MAB 사업으로 설립된 세계 100여 개국 560곳이 넘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는 지난 40년 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모범지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지구적 기후보호 조치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시급한 필요성까지 충족시키기를 기대한다.

MAB는 설립 초기부터 연구, 모니터링, 교육, 역량강화, 관리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실행하는데 혁신적인 접근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한 자연보전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은 다가올 미래세대가 살만 한 지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모범지역으로 기능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녹색경제,

생태계서비스 보호, 에너지 효율성,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장이다.

세비야 전략(1995)과 마드리드 행동 계획(2008)의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MAB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에 생물권보전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한다:

회원국의 정책적 차원

(1)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영향에 적응하는데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역량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가 및 국제 기후전략과 정책에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의 기여를 반영하고

(2)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과 개발협력을 더욱 통합하고, 개도국의 빈곤 퇴치,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보호와 연계된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3) 생물권보전지역에 필요한 충분한 법·행정·제도적 장치를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마련하여 적절한 권한을 갖추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행정과 기능을 위해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고

(4)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발전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축적된 경험과 우수사례를 최대한 널리 보급하며

(5) 기후변화가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을 포함한 문제지향적인 학제간 응용 연구, 모니터링, 평가 등을 지원하고, 이 활동의 결과를 국가 및 국제적 연구계획과 사업과 통합시키며

(6) 특별히 자연자원의 추출과 에너지 생산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토착민의 수요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사회발전과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적 방안과 활동을 지원하며

(7)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자발적인 탄소사업인 REDD+를 시행 및 평가하여 특히 산림에서 탄소격리 과정에서 토지 이용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방법론을 개선하고

교훈을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영향, 시장, 관행에 대한 학습을 향상시키며

(8)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한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실질적 차원

(9)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자금조달방안을 포함한) 혁신적인 접근방식 개발에 더 노력하고, 이 접근법을 실천하여 관리계획을 여기에 맞추고 이를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접근법과 통합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며

(10)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 사회를 참여시켜 취약성 분석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11) 기후변화 연구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지역 고유의 지식과 근대 과학의 성과를 통합하며

(12) 생물권보전지역을 생물다양성 보전이 어떻게 생태계 서비스의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더욱 노력하며

(13)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경험과 효과적인 방법론을 나누고 공동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14)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생산물과 서비스를 위한 지역, 국가, 국제 시장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기후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유네스코 차원

(15) 생물권보전지역을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역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기후변화 활동전략과 유네스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 따라 유네스코의 우선순위 지역인 아프리카와 소도서개도국에서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며

(16) 기후변화가 인간사회, 문화 및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세계자연 및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지역으로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를 유네스코의 핵심자산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차원의 학제간 연구사업에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며

(17)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기술 공유 및 우수 사례에 대한 남남 협력 및 북남남 협력을 증진하며

(18) 그 밖의 유네스코와 UN의 정부간 프로그램 및 협약, 특히 3개 리우 협약, UN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리우+20 UN지속가능발전회의, 기타 관련 국제 및 국가 기구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학습, 시범지역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19) 회원국들이 새로운 생물권보전지역, 특히 접경보전지역을 지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결론

회의 참가자들은 이 선언문에 제시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조직적, 인적 역량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회의 참가자들은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23차 이사회에서 이 선언문을 승인하고, 이를 2011년 가을에 열리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